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2월 3일(주일) 제1232호



사진은 지난해 목회사관학교

17기 온누리 목회사관학교 '기름 부으심'

2월 11~14일, 온누리교회 목회자 362명 참석
로버트 킬만 켄달 목사, 이재훈 담임목사 강의

17기 온누리 목회사관학교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된다. '기름 부으심(The Anointing)'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목회사관학교에는 온누리교회 목회자(전임, 파트) 362명

이 참석할 예정이다.

목회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영성, 사역방향을 공유하고, 동역의 기름을 만끽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축제이다. 올해 목회사관학교는 강의, 팀빌딩, 소그룹 나눔, 조별

기도, 저녁 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로버트 킬만 켄달 목사와 이재훈 담임목사가 강의한다. 로버트 킬만 켄달 목사의 저서 <내일의 기름부음>이 교재이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온누리교

회 목회자들은 날마다 기름부으심을 공급받는 내일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저녁기도회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부음을 뜨겁게 간구할 예정이다.

로버트 킬만 켄달 목사는 미국 남침례신학교에서 신학석사 학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후임으로 1977년부터 영국 웨스

트민스터채플에서 25년 동안 목회했다. 주요 저서로는 <거룩한 불>, <내일의 기름부음>, <감사해요 하나님>, <수치의 복음 영광의 복음> 등이 있다.

한편 어제(2일)부터 신임 목회사관학교가 시작됐다. 신임 목회사관학교는 2월 9일, 21일, 2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실시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9 Acts29 비전 컨퍼런스' 개최

해외비전교회 전임목회자, 협력위원 등 참석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의 쉼과 충전, 교제를 위한 '2019 Acts29 비전 컨퍼런스'가 2월 8일(금) 남한산성 목사의 집에서 개최된다. 미주, 일본, 중국, 오세아니아, 아부다비, 베트남 등 29개 해외비전교회 전임목회자와 협력위원, 이재훈 담임목사, 홍콩 CGN World 이한규 목사, 독일 빌츠 부록교회 이기복 목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Acts29 비전 컨퍼런스는 팀빌딩, 전체모임, 지역별 모임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영성과 비전, 해외목회의 어려움 등을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 주(10일) 주일예배에서는 해외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한다.

/ 정현주 기자

온 가족과 함께 'CGNTV 설 특집 프로그램'

'고고송',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등 방영

CGNTV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설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오늘(3일) 오후 6시 20분에는 다둥이 아빠 개그맨 오지현의 간증으로 채워진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가 방영된다. 개그맨 오지현은 이날 방송에서 가족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가치에 대해 나눔 예정이다.

오늘 심야 11시에는 더 많이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 드라마 '고고송' 1~2편이 연속 방영된다.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에는 각각 특집 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1, 2편이 방영된다. 클레이튼 커쇼(LA다저스 투수), 트레이 힐만(전 SK와이브스 감

독) 등이 출연해 스포츠 선교의 영향력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CGNTV 설 특집 프로그램은 IPTV, 케이블, CGNTV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다음 주 신문(2월 10일자)은 설 연휴 관계로 휴간합니다.

*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문을 온누리신문 홈페이지(news.onnuri.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년특집 성령 따라 온 누리로!

추방당한 선교사와 선교지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심리상담, 자녀 학업, 자기개발, 쉼 필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함께 섬기고 기도해야 할 사역지가 너무 많다. 본지에서는 '성령 따라 온 누리로'를 주제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역과 사역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교회와 미자립교회, 안타까운 사연의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선교지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선교지에서 추방당한 선교사와 선교지에 남은 영혼들이다. 최근 동아시아 A국과 남아시아 B국에서 사역하던 한국인 선교사들이 줄지어 추방을 당하고 있다.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홀로 남은 선교지의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비롯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사진은 선교지의 한 사원, 추방당한 선교사와 선교지에 남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2020년 즈음이면 동아시아 A국과 남아시아 B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를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동아시아 A국에서는 소수민족과의 갈등, 장기적인 집권 등을 위하여 한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다. 남아시아 B국에서는 힌두교 강성 정부가 한국인 선교사들을 무차별적으로 내쫓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안에 도청기를 심어 놓을 정도로 강한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요셉과 마리아 선교사는 동아시아 A국 N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했다. 요셉 선교사는 개인 전도를 통한 교회개척 사역을 했고, 마리아 선교사는 미용공방에서 비즈니스 사역을 했다. 이슬람이 주를 이루는 지역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기쁜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다. 한류 붐을 타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예수와 교회 그리고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알릴 수 있을 때는 정말 즐거웠다. 현지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위기가 닥쳤다.

“무슬림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 정부의 감시가 삼엄했어요. 거리, 공원, 정류장 등지에서 경찰들의 감시가 살벌했어요. 행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힘들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안한 전도방법이 천연 비누나 화장품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공방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사역을 하는 것이었다. 한류의 영향으로 현지인들이 한국 미용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방당한 그날 두 선교사는 단잠을 자고 있었다. 새벽 3시 무렵 경찰 13명이 선교사 가정을 급습했다. 마리아 선교사는 그날 밤 벌어진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

“저희를 둘러싸고 불법 종교를 전파 했다면 서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한참을 조사 받고 그날 바로 추방당했어요. 손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담대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지만 유치장에 들어갈 때는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그날 선교사와 자녀들 52명이 추방을 당했어요. 새벽 5시 비행기로 이웃나라로 보내졌는데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다른 지역 선교사들도 급습을 당하거나 비자를 회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방을 당했다. 동아시아 A국에서 사역하던 한국인 선교사 80% 이상이 추방을 당했다. 선교사들에게 갑작스러운 추방은 큰 상처가 되었다.

“왜?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사역이 실패한 것 같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회복하고 있어요.”

2000선교본부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추방선교사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활지원, 심리상담, 재배치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해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 덕분에 요셉 선교사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발견

했다.

“전인적인 회복을 돕는 기독교 상담을 선교에 접목해보고 싶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교회의 지원과 성도님들의 기도가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추방선교사들과 선교지에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이별 '추방'

남아시아 B국은 힌두교 강성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한국인 선교사들에게 빼앗긴 영혼들을 되찾겠다”고 말한 이후 한국인 선교사들의 추방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롯데 나옴 선교사 부부는 남아시아 B국에서 이웃나라 C국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다. 평소에는 추방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남아시아 B국은 비자발급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롯데 나옴 선교사 부부는 기관 봉사자로 확실한 비자를 받았기 때문이다. 롯데 나옴 선교사 부부는 현지 기관에서 한국어, 태권도, 축구, 한국 문화 등을 가르치며 학생들을 섬기고, 크리스천 정신을 전파했다.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차린 태권도장에서 관원들과 함께 운동하며 정말 행복했다. 그런데 비자 여행을 다녀온 날 문제가 발생했다. 공항에서 남편 롯데 선교사를 입국시켜주지 않았다.

“6개월 마다 다른 나라를 한 번씩 방문해야 돼요. 그날도 이웃나라를 방문했다 돌아가는 길이었었는데 저에게 문제가 있다며 입국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조사대상이라고 했어요. 이제 막 태권도장을 시작해서 C국까지 무리 없이 오가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갑자기 추방이라니 온몸에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롯데 선교사는 일단 집에 가서 급하게 짐을 꾸렸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 이웃나라로 건너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아내 나옴 선교사가 현지에 남아 사역을 정리했다. 하루하루가 눈물 바다였다.

“아웃리치팀이 와서 태권도장 벽화를 정말 예쁘게 그려줬어요. 관원이 20명이 좀 넘고 예약한 주민들도 꽤 많았어요. 집기를 하나씩 정

리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울고 있으니 현지인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롯데 나옴 선교사 부부를 통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된 동역자들이 위로를 해주었다.

“롯데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은 현지인들이 찾아와서 ‘너희 남편 크리스천이지? 너희 남편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크리스천이랑 달랐어. 우리를 도와줘서 너무 고맙았어’라고 인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국에 먼저 들어온 롯데 선교사는 마음을 추스르는데 시간을 보냈다.

“현지인들과 성도님들께 너무 미안했어요. 이제 막 꽃 피워가는 사역을 접어야 하는 것도 가슴 아팠고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성도님들과 선교지에 왔던 아웃리치팀과 교제하며 위로를 얻었어요.”

올해 초 나옴 선교사도 사역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두 선교사가 활동하던 지역에서 사역하던 한국인 선교사 절반 이상이 철수한 상태다. 나옴 선교사는 지금도 선교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했다. 롯데 나옴 선교사 부부는 남겨진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기도'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20여 가정이 추방을 당했다. 한국인 선교사들의 추방은 앞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동아시아 A국에서는 현지 교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국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정도다.

온누리교회는 추방된 선교사를 돌보고 그들을 다시 선교지로 재파송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심리상담, 자녀들의 학업, 자기개발, 쉼 등 추방선교사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추방당한 선교사와 선교지에 남겨진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기도에서 나온다고 믿고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추방된 선교사와 선교지에 남아있는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줄 때 돌파구가 생길 것입니다.”

문의: 02-795-9085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16세기 수도사 가운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빌라의 성 테레사와 함께 당시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름을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바꿨습니다. 1577년 수도원 개혁에 반대하는 수도사들에 의하여 11개월 동안 독방에 감금되고 맙니다. 가느다란 빛 하나 없는 방, 칙흑같이 어두운 방에 갇혀 있던 11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를 썼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 지를 고백하는 글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두운 체험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정결케 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을 해설하여 나온 책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 평탄하기를 바랍니다.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체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처하게 될 때

“내가 저 아래 구렁이에 빠진 사람들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사람 같으며 죽은 사람처럼 버려져 무덤 속에 누운 사람, 곧 주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주의 손에서 끊어져 버린 사람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장 깊은 구렁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습니다”(4~6절).

“여호와여, 왜 나를 던져 버리십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14절).

“주께서 내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시니 어둠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18절).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욥기 42:1~6

“하나님은 때로 어둠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쓰러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구렁이 속에, 어둠 속에, 깊은 곳에 두셨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어둠만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한 단계 더 깊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혼의 깊은 밤이라는 시험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둠을 허락하시지 않고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어둠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은 깊은 구렁이에 떨어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처하게 될 때 우리 믿음이 진정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이 예화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가봐야 자신의 차의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켜져 있지 않은지를 알게 된다.”

빛이 환한 길을 갈 때는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 어두운 길로 들어서면 자신의 차의 전조등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의 첫 번째 고난과 승리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겪었던 육체적 고난 자체가 그를 어렵게 한 것보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그 영혼에 임했던 어두운 밤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 어려움을 견디는 것보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영혼에 깊은 어두운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사탄이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받은 것을 제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고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을 잠시 허용하셨습니다. 욥을 시험대에 올리셨습니다.

욥의 고난은 세 단계를 거쳐서 나타납니다. 첫째, 단 하루 만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누려왔던 풍족한 모든 소유, 심지어 자녀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의 소, 나귀, 종들은 스바 사람들이 공격해서 빼앗아가고 죽었습니다. 낙타와 종들

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광야에서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죽었습니다. 이 상실의 고난이 여유를 주지 않고 연속적으로 임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어 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뱉겨뼉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겨뼉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욥 1:20~22).

놀라운 믿음입니다. 최고의 복된 상태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해버렸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찬양했습니다. 욥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란 고난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상실해 봐야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관계를 잃을 때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잃어버릴 때 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 축복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상실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앞에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첫 번째 단계 시험에서 대부분 쓰러집니다. 욥은 두 번째 단계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욥에게 가장 혹독한 질병이 임했습니다. 그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난 것입니다. 놀랍게도 욥은 이 고난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가 쓰러집니다. 욥의 아내의 인내심은 이 공격과 고난 앞에 꺾입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잘난 총성심이나 붙들고 있대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려요!”(욥 2:9).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것은 아내는 이미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군.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

은 입술로 죄 짓지 않았습니다”(욥 2:10).

욥은 아내의 어리석은 하나님께 대한 저주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단계 상실의 시험, 2단계 건강의 시험 앞에서도 욥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세 번째 시험은 고난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순간적인 고난은 그나마 견디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고난, 계속적인 고통,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속 고통을 견디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시험을 거치면서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시험은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고난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욥이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온 지 7일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한숨, 한탄, 자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한 마디씩 하면서부터 더 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위로하러 오는 사람이 없을 때는 차라리 침묵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위로한다면서 했던 친구들의 말이 욥을 어둠에 빠뜨렸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를 고난에 처하게 하실 리가 없다.”

친구들은 인과응보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기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 잘 찾아봐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만한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을만한 죄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일까?’ 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욥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백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살아 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걸세”(욥 27:5~6).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3면에 계속)

자녀교육, 성경에 그 답이 있다

불행한 아이로 만들 것인가, 행복한 아이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는 것이 크리스천 부모의 역할

“공부 잘 하는 것이 착한 거야.”

화제의 드라마 ‘SKY 캐슬’ 속 한 대사이다. 드라마 SKY 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 사는 타운하우스 SKY 캐슬 안에서 벌어지는 명문가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 드라마 등장인물들은 공부밖에 모르는 자녀들과 자녀들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려는 부모들뿐이다. 이 안타까운 내용이 비단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까? 안타깝지만 크리스천 부모들조차 자녀를 주일학교나 예배에 보내기보다 학원에 보내는 걸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코 건강한 교육방법이 아닌 걸 알면서도 말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건강한 자녀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아동권리지수 조사

자료: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 **21%**

1년 사이 2주 연속 슬픔, 좌절 겪었다 **17%**

몇 해 전,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설마, 그 정도까진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드라마 SKY 캐슬을 보고 있노라면, <르몽드>의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드라마 SKY 캐슬 속 아이들의 삶은 비참하고 처절하다. 개성과 의지는 없고, 인생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에 맞춰져 있다. 부모들도 비참하고 처절하긴 마찬가지다. 아버지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욕에,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향한 빼돌려진 교육열에 빠져 있다. 딸의 명문대 입시를 위해 입시 코디에게 무릎 꿇는 것도 마다치 않는다. “인생은 오직 경쟁”이라며 피라미드 계층 꼭대기에 서야 한다고 무섭게 압박지르기도 한다. 자신의 딸을 위해 다른 학생의 죽음조차 물어버린다. 내신 1등급 4명 중에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인자로 몰렸으며, 또 한 명은 멘탈이 붕괴된 상태다. 과연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 이 이야기가 비단 이 드라마만의 이야기일까?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 아이들이 행복할지 없다.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지난해 NGO 굿네이버스가 전국 17개 시도 아동 9천명과 보호자 9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조사에 따르면,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아이들이 21%, ‘1년 사이 2주 연속 슬픔과 좌절을 겪었다’는 아이들이 17%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4학년 5%, 6학년 11%, 중학교 2학년 15%가 불행하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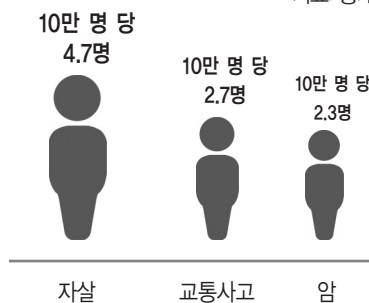
불행한 아이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꽃다운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17년)’에 따르면, 10~19세 연령군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인구 10만 명 당 4.7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2.7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 2.3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

한국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OECD 나라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OECD가 72개국 15세 학생 54만 명을 대상으로 ‘삶 만족도’를 조사했다. 0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충분히 만족한다)까지 스스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6.36점을 기록, OECD 회원국 평균 7.31점을 크게 밑돌았다. 한국 학생 응답자 22%가 가장 낮은 삶 만족도를 뜻하는 4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이는 OECD 평균(12%)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밖에도 한국 학생 75%가 “학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해 OECD 평균(66%)보다 9%포인트 높았다. 학업과 장래에 대한 높은 부담감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커녕 부모의 욕심에 휘둘려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맹목적인 입시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만큼 아프고, 안타깝고, 슬픈 자화상이 없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특히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어떻게 해야

10~19세 사망원인통계

자료: 통계청



할까?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교육

크리스천 부모라면 자녀교육의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답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자녀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창 33:5).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또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4~7).

부모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고 한들 소구에 경 읽기다.

궁극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한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먼저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막 10:13~16).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축복 속에 키우고 싶어 한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녀를 예수께 데려와야 한다.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끌어야 한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그 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가는 어린아이였다. 마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다.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눈 장소가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었다. 그곳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로 모이는 곳이기도 하다. 어린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없거나 가물가물했을 것이다. 그러나 마가는 장성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쓰임 받았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한 나쁜 아들 사무엘을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웠다(삼상 1:9-2:11). 사무엘은 왕의 아들도,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도, 폐하기도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사무엘을 키운 건 돈도, 권력도 아닌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직접 키운 기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젖 떼 때인 2살 정도까지 키웠다. 이 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봐야 얼마나 시켰을 것이며, 또 그것을 사무엘이 기억이나 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 자랐다(삼상 2:21). 한나의 기도 덕분이다. 한나의 기도의 힘은 실로 컸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이 자랐지만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 자랐고, 엘리의 두 아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

“강준상이 없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쏠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어머니가!”

드라마 SKY 캐슬 속 잘 나가는 의사 강준상이 오염하며 내뿜는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자녀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선물한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키우는 것이 곧 크리스천 부모의 역할이다. 결국 모든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잠 1:7). 크리스천의 자녀교육 또한 마찬가지이다. 성경에 그 답이 있다.

왜 알기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까?

우리는 이 죄목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



김정순 목사
(부천 차세대)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한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행 11:26). 성경

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좇아 써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엡 4:21-25).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라’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아주 강하게 우리를 몰아 부친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십시오”(엡 5:8-11).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이미 알고 있다.

폴 워셔 목사의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폴 워셔 목사가 10년 전 설교한 것을 책으로 묶은 것으로, 현대 교회와 목사들의 문제를 고발했다. 피고의 이름은 현대 교회와 목사들이며, 죄의 항목은 총 10가지이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 거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 교회의 권징 부족, 구별됨에 대한 침묵,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어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들이 바로 10가지 죄목이다.

또한 폴 워셔 목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성령님이 해 주시겠지’라며 단순히 기대하고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령님께만 기대는 것은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다. 존 맥아더 목사, 존 파이프 목사와 동일하게 ‘Lordship salvation(주재권 구원;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중생한 사

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자 하는 열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외치면서 구원 받은 자로서의 행위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라고 설교했다.

드라마 SKY 캐슬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SKY 캐슬’이다. 드라마 SKY 캐슬은 부와 명예, 권력을 다 가진 대한민국 상위 0.1%의 남편들과 제 자식을 천하제일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명문가 출신 사모님들이 SKY 캐슬이라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오직 서울의대 입학 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

주의의 산물임을 부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잘못된 교육 목표로 인해 나라와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한창 싱그럽게 꽃을 피우기도 전에 켜버리는 현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른다. 이것은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부모를 적(敵)으로, 복수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큰 화두를 던진다.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학교폭력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부모들의 욕망으로 인해 아이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또한 드라마 SKY 캐슬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화두를 피라미드로 보여주고 있다. 바로 계층의 피라미드이다. 인성을 무시하고, 오직 피라미드 계층 꼭대기에서 전체를 지휘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갑질 인생’을 아이들 때부터 강요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적나라하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두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성령님이 복주기를 원하고 있다.

성경의 충분성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고 있다. 인간의 욕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블랙 코미디이다. 이 드라마의 작가 유현미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폐단을 날카롭게 해부하였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십자가와 벽에 있는 말씀, 성경책이 얼핏 보였다. 나는 이 장면들이 내내 마음속에 찔리게 남아 있다.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간에 모든 가정에서 가장 핫한 것은 바로 교육이다. 이 드라마는 한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끄집어내어 가정마다 폭탄을 투하한 격이 되었다. 혹자는 이 모든 것이 어쩔 수 없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탐욕과 자기 과시,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학벌주의와 성공

정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다음과 같다고 했다.

“나는 평균 이상이다. 그 사람과 친하다. 내가 나서야 일이 된다. 나는 착각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은 착각하지 않는다는 착각’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을 착각 속에 살고, 가끔 제정신으로 산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무디거나 민감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착각프레임’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생각하는 모든 밑바탕은 교육과 환경에 의해 견고해진 프레임에 의해 행동되어진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프레임은 뚜렷한 경계 없이 펼쳐진 대상들 중에서 특정 장면이나 대상을 하나의 독립된 실체로 골라내는 기능을 하며, 우리가 지각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선택적으로 제약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각과 생각의 결과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모든 결정에서 우리는 짧은 순간의 판단(사람프레임)보다 깊은 사고와 관찰을 통한 판단(상황프레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레임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한다. 나의 생각 속에 ‘최고가 되겠다’는 견고한 진이 이미 프레임되어 있다면, 그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을 소비하게 된다. 이 프레임을 우리는 드라마 SKY 캐슬에 나온 캐릭터들의 살 떨리는 파멸의 과정을 통해 볼 수 있다.

성공이나, 행복이나의 질문에서 정답은 늘 뻔하다. 우리는 입으로는 정답을 외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는 또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프레임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프레임은 다르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전쟁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고, 영적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시무시한 프레임 전쟁에 대해선 무지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폴 워셔 목사가 지적한 성령님께 의지하기만 하지, 나 자신이 변하고자 하는 치열한 프레임 싸움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했다.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성령님이 복주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폴 워셔 목사가 기소한 첫 번째 죄목인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이 죄목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의 ‘착각프레임’

비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는 무엇일까? 우리 너무나 명확하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서서평 선교사)임을 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만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폴 워셔 목사가 지적한 이미 기소된 죄의 항목들이다. 알기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왜일까? 이 케케묵은 질문은 매순간 먼지를 떨고 올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묻는다. 문제는 자신에게 묻지 않고, 타인에게 묻는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고려대 심리학과 허태균 교수는 <가끔은 제

패션(Passion) 2019

“나는 스쿨 체인저입니다” (School Changer)

2,300여 청소년 “학교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될 것” 다짐

정말 대단한 열기였다. 청소년 예배캠프 ‘패션(Passion) 2019’(이하 패션집회)말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꿈, 비전을 선물 받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며 찬양했다. 기뻐 뛰고 춤을 추며 ‘학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패션집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더 스쿨 체인저스(The School Changers, 학교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를 주제로 한동대학교에서 막 올랐다.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 2,300여 명이 모였다. 그 뜨겁고 벅찬 은혜의 현장에 다녀왔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청소년들이 청소년 예배캠프 ‘패션 2019’에서 학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다.

경상북도 포항 한동대학교 효암채플실. 패션집회가 시작되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빈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집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청소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 패션집회가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이유가 있다. 경상도가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차세대를 변화시키면 부모가 변하고, 부모가 변하면 지역사회가 복음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전라북도(26.9%)다. 그 다음이 서울(24.2%), 전남(23.2%), 인천(23.1%), 경기(23%) 등의 순이다. 반면 경북(13.3%), 부산(12.1%), 대구(12%), 울산(10.9%) 등 경상도 지역은 기독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안 그래도 낮은 복음화율이 경상도

지역 학교에 들어서면 더 낮아진다. 경상도 지역 학교에는 한 반에 크리스천 학생이 한두 명 있을 정도다. 패션집회가 한동대학교에서 막 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경상도 지역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 희망, 비전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꿈과 비전

청소년들의 표정에서 패션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예수안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2부)도 큰 기대감을 갖고 패션집회에 참석했다.

“패션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친구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통로로 쓰임 받고 싶어요.”

전진호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1부)도 이

번 패션집회에 참가하는 각오가 남달랐다.

“올해 패션집회 주제가 ‘더 스쿨 체인저스(The School Changers)’인데 저도 학교를 선하게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장 높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듯이 저도 학교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섬길 거예요.”

패션집회의 또 하나의 백미는 찬양이었다. 패션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두 팔을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했다. 찬양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계절을 잊을 정도였다. 청소년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노래는 초콜릿보다 달콤했다. 이종명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3부)도 찬양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찬양하면서 학생의 본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제 역할은 학교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입니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학생이 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패션집회의 또 다른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심어주는 것이었다. 패션집회 감사들의 메시지에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숨어있었다. 패션집회 감사들은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학교와 친구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라”고 권면했다. 차상은 학생(대전 온누리교회 중등부)이 눈물을 쏟아 내며 무릎 꿇었다.

“학교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매일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울산에서 온 박아희 학생(울산 하나교회)은 학교에 크리스천 학생과 교사들이 별로 없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다.

“학교에 크리스천 선생님과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자신 있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번 패션집회에서 우리 학교에 크리스천 선생님과 학생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려면 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패션집회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물 받은 학생도 있었다. 이혜지 학생(일산 은혜교회)이 그 주인공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시절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이 학교와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들을 섬기는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을 보면서 저도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꿈꾸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입니다.”

이번 패션집회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선물 받은 청소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이진우 학생(남양주 온누리교회 고등부)의 대표 기도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었다.

“주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크리스천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과 학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보이지 않는 섬김과 헌신 덕분에...

패션집회가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이들의 섬김 때문이었다. 교사들의 헌신이 가장 빛났다.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했다. 홍윤태 교사(서빙고 파워웨이브 4부)는 “이번 패션집회를 통해서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길 바란다”고 기도했고, 박성주 교사(태안 온누리교회)는 “패션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자원봉사자들도 온힘을 다해 섬겼다. 식사 안내, 예배시간 안내, 간식배부 등 집회가 진행되는 내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피곤할 법도 한데 자원봉사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일뿐”이라고 간증했다.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이 시대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관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친구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이번 패션집회에 참가한 모든 친구들이 스쿨 체인저가 되어서 학교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패션집회의 마지막 순서인 ‘스쿨 체인저스 발대식’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에 중보기도모임을 세우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겠다고 결단했다. 패션집회는 막 내렸지만 청소년 예배와 기도모임은 계속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에서는 이번 패션집회에서 결단한 학생들과 각 부서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훈련시켜 학교 중보기도 리더로 세워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달(2월)부터 시작하는 파워스테이션 위십(매월 넷째 주 토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을 통해 지속적으로 차세대 예배자들을 양육하고, 학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이어갈 것이다.

문의: 02-3215-3523

소설 〈한 톨의 밀알〉 읽어보셨나요?

예수 둘러싼 배반의 서사(敍事)로 아프리카 역사 해석



최윤 교수
(프랑스어예배, 소설가, 서강대 명예교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일반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아프리카 작가와 문학작품은 많지 않다. 지리적으로도 멀지만 무엇보다도 실리적으로 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흑아프리카는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오지여행에 적합한 이국적인 땅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가뭄, 질병으로 대표되는 어두운 소식이 들려오는 대륙으로 각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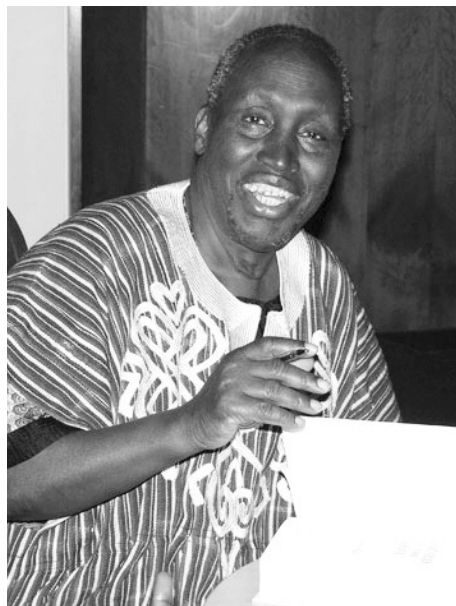
지구 끝의 소식조차 거의 동시적으로 모두에게 전달되는 유비쿼터스 정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아프리카 소식도 실시간으로 들려오기에 이 대륙에서 울려오는 신음 소리에 무관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상당수 남아있어 선교사들의 가슴을 뛰게 하며, 지난 세기에 이어 여전히 아프리카 곳곳에서 부흥 소식이 들려온다.

패트릭 존스턴은 〈세계 교회의 미래〉에서 2050년에는 아프리카에 전 세계 기독교인의 44%가 포진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프리카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적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 검은 대륙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촉구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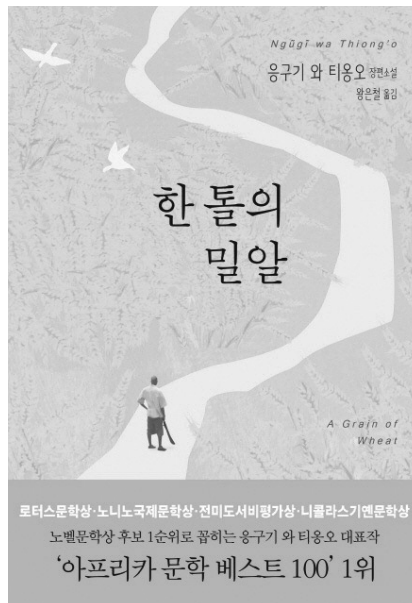
아프리카 대륙에도 종족 수만큼이나 많은 종족 언어로 쓰인 문학이 풍성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의 문학이 먼 이웃인 우리에게 도달하는 과정이 수월치 않다. 더구나 종족어로 쓰인 대부분의 아프리카 문학은 한때 그들을 지배했던 유럽의 언어들을 통과하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 땅의 딜레마이다. 이것은 1884년 베를린회의에서 합의된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의 아프리카 식민지역 분할 결과로 종족어나 언어 혹은 문화적인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경이 그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지도에 언제라도 분쟁이나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인위적으로 그어진 직선의 국경이 눈에 아프게 밟힌다. 이 대륙의 평화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작가 ‘응구기 와 티옹오’의 소설 〈한 톨의 밀알〉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작가 ‘응구기 와 티옹오(Ngugi Wa Thiong'o)’는 이 분할에 대해 “유럽 국가의 언어 분할을 따른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프리카의 문학작품은 이런 역사적 흔적과 분리되어 이해할 수 없기에 아프리카 문학작품들은 어떤 입문서보다 아프리카의 문화와 삶의 구체적인 양상을 우리에게 생생



케냐 작가 ‘응구기 와 티옹오’와 그의 작품 〈한 톨의 밀알〉.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며, 고통 받은 사람만이 배풀 수 있는 전권이자 특권이기 때문이다.”

하게 전달한다.

응구기 와 티옹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국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자랐고, 청년 시절인 1963년 케냐의 독립을 본 작가답게 그의 작품들의 소재는 케냐의 독립과 여전히 식민주의가 지속되는 독립된 케냐의 초도화 되어가는 현실을 다룬다. 이러한 작품의 주제는 체제의 미움을 사기에 그의 삶은 아프리카의 신산스러운 역사를 닮아 투옥과 망명, 유랑으로 점철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고린도전서 15장 36-37절의 말씀을 머리말로 새기면서 시작하는 〈한 톨의 밀알〉은 이제 고전이 된 응구기의 대표작이다. 누구나 알 수 있듯 작품의 제목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빌려왔기에 성경의 두 인용 구절은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요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케냐의 독립을 위해 ‘한 톨의 밀알’이 되고 사망한 ‘키하카’라는 청년을 둘러싸고 몇 겹으로 일어나는 배반과 작품에서 ‘유다’로 지칭되기도 하는 배반자들의 죄의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작품의 전체적인 어조는 역설적이게도 매우 서정적인 내적 독백으로 시종일관 이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케냐의 작은 농촌마을 타바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 작품에는 아프리카의 장대한 자연 풍광에 대한 묘사도, 대자연 속 모험담도 담겨있지 않다. 작품이 인물들과 그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이 작품의 실리는 작가의 의도가 더 깊은 곳에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 톨의 밀알〉이 케냐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인물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 갈등이기 때문이다.

배반당해 죽었기에 작품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청년 키하카가 있다면, 그와 독립군들을 도운 영웅으로 추앙되는 ‘무고’라는 인물이 있다. 그를 영웅으로 추대하려는 주변의 격양에 무고는 무반응으로 일관한다. 무고의 이러한 은자적인 면모로 인해 그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는 더 높아져만 간다. 그런 평가와 반비례해서 작품은 매 단계 무고의 내면적 갈등을 대비적으로 그려낸다.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받은 고통의 기억들이 뒤섞이는 갈등의 심리 속에서조차 사실 그가 저지른 일은 마치 내면적으로 스스로 검열되듯이 분명하게 발설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아름다운 케냐를 상징하듯 생명과 정열을 현현하는 여성 ‘뭉비’가 있다. 키하카의 여동생인 뭉비의 순수한 눈빛 아래서 무고는 자신이 바로 그녀의 오빠이자 독립의 진정한 영웅인 키하카를 죽인 배반자임을 고백하며 그녀 앞에 무릎 꿇는다.

〈한 톨의 밀알〉은 얼굴 없는 주인공 키하카가 남긴 성경에 밑줄 그어져 있던 구절을 몇 번에 걸쳐 인용하면서 사건의 장을 나눈다. 일종의 작품의 이정표이기도 한 이 구절들을 통해 독자는 이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배반의 서사(敍事)를 확장시켜 아프리카의 역사를 해석해보려 한 저자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기에 흥미롭다.

케냐의 독립은 인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것처럼, 항거와 투쟁과 수용소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시간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고의 배반과 고백과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가 절대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물론 작품 안에는 뭉비를 사이에 두고 애정 경합을 펼치는 ‘기코노’와 ‘카란자’의 드라마도 있다. 무고와는 다른 이유지만, 이들도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배반한 경력의 인물들이다. 이 주변인물과 무고와의 차이점은 무고에게는 배반에 대한 실존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면에서 상징적인 유다인 무고는 고백과 회개를 통해 작품 속에서 거듭난다. 작품은 케냐의 정치적인 해방에 못지않게 그의 존재가 고백과 회개를 통해 배반의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에 작품은 마무리 부분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무고의 고백을 넣음으로써 독자들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상기하도록 이끈다.

이 작품에서 한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해방은 한 인물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결과 궤를 같이 한다. 그것이 국가적 차원의 것이든 한 개인의 영역의 문제이든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자유의 획득은 도덕적인 회복에서 완결되는 것임을 〈한 톨의 밀알〉은 무고라는 인물의 내적, 외적 여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응구기가 말하고자 하는 케냐의 진정한 독립이자 해방인 것이다. 아프리카의 현실을 현상적이며 사실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한 여타의 아프리카 작품들과 응구기의 〈한 톨의 밀알〉이 구별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용서, 고통 받은 사람의 전권이자 특권

〈한 톨의 밀알〉 이후 응구기는 체제 비판적인 작품들로 인해 투옥과 망명을 거듭하는 고초를 겪으며 유랑의 삶을 살았다. 그의 작품도 이후 변화를 겪는다. 아프리카가 유럽에서 받은 상처는 응구기로 하여금 그를 구성했던 유럽의 식민지적 특징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그 흔적들을 지운다. 세례명, 영어를 버리고 원래의 응구기 와 티옹오로 돌아오며, 종족 언어인 키쿠유어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다.

그 상처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프리카의 현실을 온전히 접할 수 없다. 유럽과 아프리카 인접한 이 두 대륙에서 사과와 용서의 상호적 노력이 없는 한 이 골은 매워지지 않을 것이다. 영적으로 메마른 유럽의 진실어린 사과와 때보다 아프리카에 임할 용서의 때가 더 기대되는 즙음이다.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며, 고통을 받은 사람만이 배풀 수 있는 전권이자 특권이기 때문이다.

특별기고 역사적 예수 연구 시리즈

나사렛 예수의 산상설교 I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살롱나비 상임대표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나사렛 예수가 행하신 설교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 바로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에 기록한 ‘산상설교’이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현장이다.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그의 메시아적 사역 가운데서 다가오는 하나님 통치를 기대하는 신자들의 삶의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산이나 평지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장소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다. 예수는 가버나움 호수변의 산(팔복산)에서 무리를 앉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마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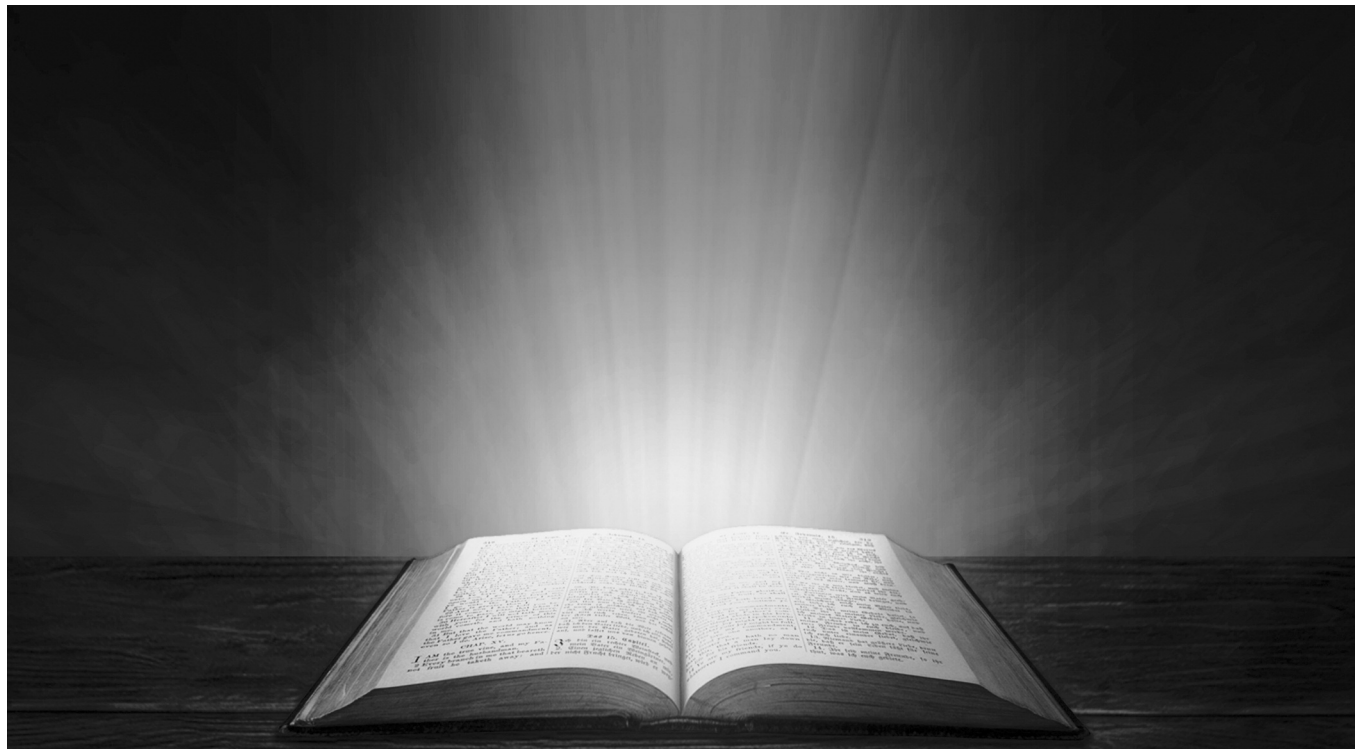
8복(福, The Beatitudes)에 관한 유명한 산상설교를 하신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 5~7장에서, 누가는 6장 20~49절에서 예수의 산상설교를 기록하고 있다. 마태는 예수의 여덟 가지 복 선언을 마음이 청빈하고 경건한 자가 받는 복으로 특징짓고 있는데(마 5:2~12) 반해서, 누가는 사회적인 곤궁 속의 민중들의 적나라한 궁핍을 더욱 반영하며 그러한 궁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눅 6:20~26).

산상설교의 선포는 선포하시는 자의 신비와 권위에서 드러난다. 예수 선포의 깊은 주제는 예수 자신의 신비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로써의 신비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 아들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으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신자가 살아야 할 윤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예수는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을 반포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예수의 설교와 치유의 사역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신자의 삶 속에서도 수용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산상설교의 신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제자들 안에서 발아(發



“산상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芽)된 모습으로 현재해 있다. 산상설교는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에 직면하여 신자들에게 요청되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새로운 삶의 윤리를 가진 자들이다. 이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요, 그 윤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자들이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은 그 삶과 사고방식이 새로워진다. 중생한 자의 삶이란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자이다.

산상설교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사회개혁을 위한 원리를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 개혁의 원리는 오히려 영적인 가난함과 자기 비움에서 기인한다. 진정한 사회개혁이란 사회의 정의로운 개혁을 제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의 정신의 개혁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한 자들의 공동체에서 비로소 진정한 사회개혁은 이루어진다. 공산주의자들의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역사상 72년간의 실험으로 좌초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인간의 내면적 욕심을 제거시키지 않고 외면적으로 강압적으로 제도 개혁만을 시도한 데 있기 때문이다.

팔복(八福) 메시지, 참 복의 선언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8복(八福, The Beatitudes)을 선언하고 있다. 예수는 이러한 팔복 선

언을 듣는 사람들이 이에 상응하는 삶과 태도를 가지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한다. 마태는 예수의 축복 선언을 유대의 청빈자의 경건정신의 관점에서 기록했으며 그 외에 네 가지가 추가되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the poor in spirit)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천국은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the poor)의 것이다. 천국은 부자나 권세자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것이다. 부자나 권세자는 그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바리새인 니고데모, 백부장 고넬료처럼 부와 권력을 가졌으나 천국 복음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를 남을 위한 위탁물로 여기고 봉사한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사는 자들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지닌 자들이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나니라”(고전 7:31).

교회는 욕심으로 부유한 자들이나 권력 추구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욕심과 권력 추구를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고 겸허한 자들이 소유한다. 욕심을 떠난 자들에게 천국은 다가온다.

“애통하는 자(the mourning)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 5:4).

예수의 이 메시지는 구약 선지자 에스겔의 메시지를 연상시킨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겔 9:4).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불의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처벌 심판을 모면한다. 진리 때문에 애통하는 자(the mourning)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자신의 허물을 알고 뉘우치는 자에게 천국은 다가온다.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세례자 요한은 외쳤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예수도 선포하셨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 4:17).

회개하는 자는 애통하는 자이며,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뉘우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는 자이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신다.

“온유한 자(the meek)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인자를 실천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천국은 그 마음이 인자한 자의 것이다. 여기서 온유한 자(*prais, the meek*)는 단지 폭력을 쓰지 않는 사람을 넘어선다. 이 단어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한다.

온유한 자(*the meek*)는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로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를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추진하는 자다.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민 12:3).

예수도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 11:29a).

평화의 왕이신 예수는 세상의 왕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마 21:4-5, 요 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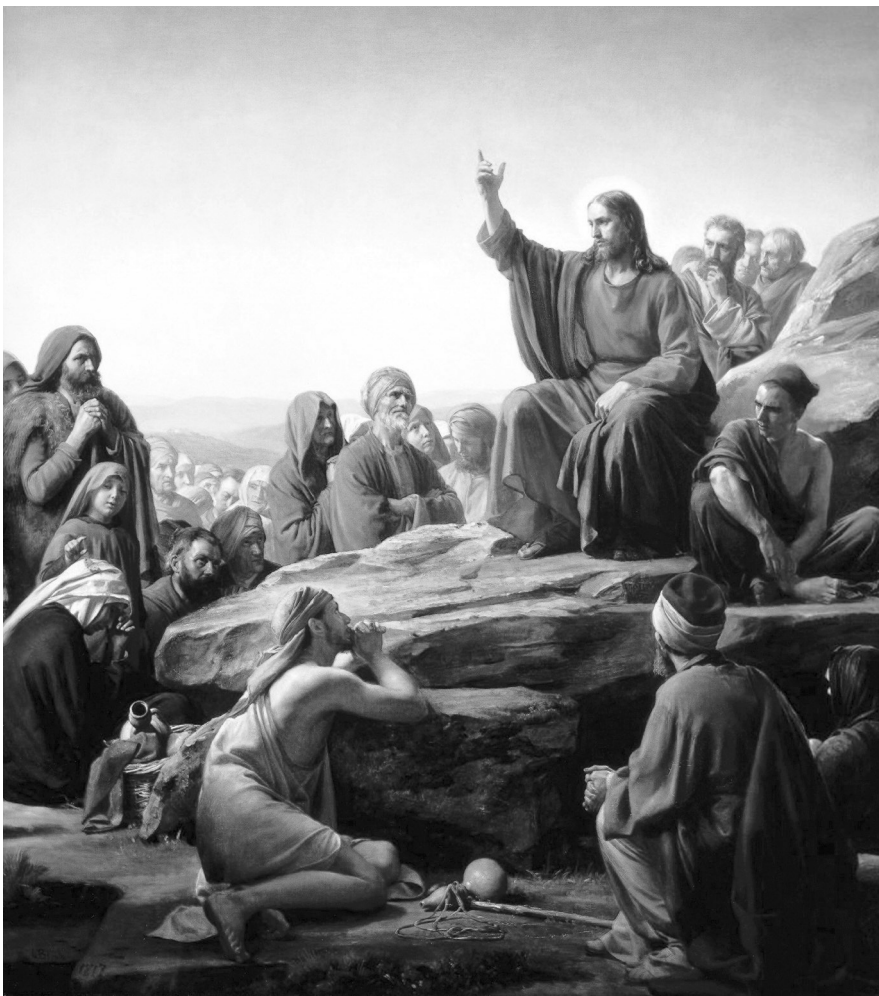
그 지경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이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된 땅이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할 때 최종 목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 바벨론 유배 중에는 이스라엘은 고국 땅으로 귀향할 것을 소망하였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는 도중에서 땅의 개념은 깊이와 넓이를 더해갔다. 땅이란 개인의 소유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간다. 온유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여 씨를 뿌리고 수확하고 고락을 나누며 계속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다. 이 경작지에서 온유하고 소박한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다. 그러나 예언자에 이르러 땅의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다.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영토는 민족국가가 아니라 온 세계다. 그 지경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룬다(사 9:10). 이 표현의 배후에는 땅은 하나의 둥근 판으로 그 둘레에는 많은 물이 감돌고 있다는 고대의 세계상이 자리한다. 온유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마 5:6).

구약에서의 의(*tzedakah,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이다. 충성이란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른 길을 지키는 것이다(시 1:1-2; 렘 17:5-8). 그 중심에는 십계명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간절히 추구하는 자는 그의 삶 속에 정의가 실현됨을 볼 것이다. 신약에서 의(*dikaion, righteousness*)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나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루터와 칼빈, 나스 등 종교개혁자들과 영국의 청교도들과 감리교인들은 이신칭의의 도리를 발견하였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의 제자 됨의 길을 가는 자이다. 이들은 지배적인 여론과 사회적 인습과 관례와 권력의 독재 앞에 굴종하지 않고 거기에 저항하며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카를 하인리히 블로흐의 ‘산상설교’.

의(*righteousness*)란 오늘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알카에다,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전사(戰士) 등)처럼 인간이 설정한 성전(*zihad, 聖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의란 피의 복수가 아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란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며, 용납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짐을 대신 져 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의다.

“궁휼히 여기는 자(*the merciful*)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에 대하여 동정과 연민을 가지는 자는 자기가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동정과 연민을 받을 것이다. 고통 받는 이웃에게 연민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다. 클레르브의 성 베나드(*St. Bernard de Clairvaux, 1090~1153*)는 아가서 주해서에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실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고통을 함께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절대적인 초월적인 이념의 세계 속에 있는 헬라적인 신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자이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 초월성과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그의 아들의 성육신과 십자가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끼시고 인간의 아픔에 동참하시는 공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산상설교가 증언하는 하나님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the pure in heart*)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 5:8).

그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의지만으

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성과 의지의 바탕이 되는 영혼의 정서적 바탕인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직자에게 와서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나 ‘그대의 마음의 창이 어떠한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자신을 보여 주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의 조건을 말한다.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시 24:3-5).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손이 깨끗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정직과 진실과 외로움의 관계를 가진 자를 말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the peacemakers*)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평화를 사람들 가운데 퍼뜨리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하나님과 평화를 가진 자들은 이웃과의 평화를 가질 수 있다.

영원한 영광의 상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those being persecuted*)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마 5:10).

역사의 각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의 세력이 있다. 의로운 자는 이러한 세력에 대항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다. 의를 위하여(*because of righteousness*) 박해받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는 말씀하신다. 주기철, 손양원, 한상동 목사는 일제의 신사참배 요구에 저항하다 옥에 갇혔고, 주기철 목사는 순교하고 손양원 목사와 한상동 목사는 옥고를 치르는 고통을 당하였다. 북한의 공산치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되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복음과 의(義)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for the sake of me*)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 5:11).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 예수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선조들,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었다. 한때 복음의 성지였던 평양과 북한 지역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박해당하고 욕을 당하고 감옥에서 고문 받고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고 일제에 굴복한 당시 한국 교회 어용 노화에 의하여 산정현교회 목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가족들도 목사관에서 쫓겨 나가는 박해를 당하였다. 손양원 목사도 6.25 전쟁 시 애양원의 가족들을 떠나지 않고 돌보다가 공산당에 의하여 피살당함으로써 순교하였다.

오늘날도 동남아시아 힌두교권과 이슬람권(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에서는 복음전도를 하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your reward*)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마 5:12).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주기철 목사와 그 가족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으며 천국에서 순교자들로서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누릴 것이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당한 고문과 옥고와 순교로 인해 천국에서 영광의 상급이 클 것이다. 손양원 목사도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천국에서 영원한 순교자의 영광과 상급을 누릴 것이다. 구약 선지자부터 신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카타콤의 신자들, 종교개혁 때 개신교 신자들, 영국의 청교도들, 오늘날 무슬림국가에서의 기독교인과 북한에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계속)

예수제자학교(JDS) 수강생 모집

주간반 50명, 저녁반 70명씩 5개 반



지난해 예수제자학교 학생들이 '예수 제자의 날'을 맞아 특순을 하고 있다.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s School)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빙고, 양재 주간반(화, 목 오전 10시~오후 3시, 여성), 서빙고, 양재, 수원 저녁반(목 오후 7시, 토 오후 2시, 남녀 모두) 총 5개 반이다. 주간반 50명, 저녁반 70명씩 모집한다. 개강은 서빙고, 양재 주간반 2월 28일, 서빙고 저녁반 3월 9일, 양재, 수원 저녁반 3월 2일에 한다.

예수제자학교(JDS)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참된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지상명

령을 수행할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학교이다. 총 22주 동안 '하나님과 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집사가 위에서', '약한 영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제출서류는 입학신청서(소속 교회 교역자 확인)와 추천서(교역자가 직접 추천서 작성) 양식을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등록금은 60만 원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반	개 강	일정 및 시간	문의
서빙고 주간반	2월 28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박성하 팀장 010-6425-9912
서빙고 저녁반	3월 9일	목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2시	박병주 팀장 010-8201-8468
양재 주간반	2월 28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최미라 팀장 010-9320-4738
양재 저녁반	3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2시	백위현 팀장 010-3773-2304
수원 저녁반	3월 2일	목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2시	류택용 팀장 010-8968-0205

온누리 호스피스학교 수강생 모집

3월 6일 개강, 매주 수요일 서빙고 비전홀

질병으로 인한 아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고, 죽음 앞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온누리

호스피스학교에 참여하는 것이다. 온누리 호스피스학교는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 12시 4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

서 진행된다. 호스피스에 대한 질환과 환자에 대한 이해, 병원봉사자의 자세 등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가족 중에서 만성질환 환자가 있는 성도가 참여해도 좋다.

문의: 010-3412-796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3535	이승수	용산	1133557	한성훈	여호수아	1133585	김용현	요셉	1133604	최문정	가정사역
1133536	박현경	용산	1133558	박고은	여호수아	1133586	심우찬	분당A	1133605	이순구	강남B
1133537	김종훈	양재	1133559	김형진	여호수아	1133587	이월숙	경기A	1133606	김태련	수원사역
1133538	장영은	성동광진	1133560	차현정	여호수아	1133588	이민하	SNS	1133607	안광호	가정사역
1133539	이루다	무궁동체	1133561	최상현	여호수아	1133589	김태희	강남B	1133608	정호생	진새골
1133540	이경수	부천 사랑	1133562	공윤선	대전 남누리	1133590	조예송	갈렙	1133609	황종섭	진새골
1133541	윤창운	성동광진	1133563	권유현	성북	1133591	이현탁	푸른누리	1133610	김연희	진새골
1133542	박연진	부천Dream	1133564	이선일	양재	1133592	이승표	강남B	1133611	엄은숙	진새골
1133543	이경하	대전 남누리	1133565	이승철	북누리	1133593	김지선	분당A	1133612	유보라	진새골
1133544	박형언	인천 소망	1133566	최재혁	허브	1133594	정재훈	SNS	1133613	신미연	인천 소망
1133545	최진실	양재	1133567	박민지	허브	1133595	예준영	SNS	1133614	임홍	하늘
1133546	김태성	아수	1133568	김태호	허브	1133596	조수빈	SNS	1133615	최지연	하늘
1133547	김효경	대전 동누리	1133569	황영훈	허브	1133597	최규범	SNS	1133616	박혜미	하늘
1133548	HAN TAUIN	중국어예배	1133570	윤소연	허브	1133598	김시은	SNS	1133617	김승환	하늘
1133549	김대란동일	부천 화평	1133571	김은경	강남B	1133599	김혜중	강남B	1133618	권조나단	OEM영어예배
1133550	이철명	인천 소망	1133572	정민석	요셉	1133600	유재연	성동광진	1133619	백경애	남양주A
1133551	이혜영	강남C	1133573	석구연	요셉	1133601	조세준	강서	1133620	김진순	교양은평
1133552	이승섭	아수	1133574	임동규	요셉	1133602	김은희	양천	1133621	김종서	양지 동누리
1133553	안재훈	여호수아	1133575	홍은솔	요셉	1133603	이호은	서초A	1133622	임은화	남양주C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 개최

13개국 이주민 1,100명 참석 예정

어제(2일)부터 시작된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가 오는 2월 23일까지 각 공동체별로 진행된다. 올해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에는 13개국에서 온 이주민 1,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온누리M미션 설날수련회에는 CIS연합(Rusta), 몽골,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태국 등 6개국 연

합집회를 포함해서 20여 개 공동체가 국가별 연합집회를 진행한다. 각 공동체별 연합집회 일정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후원: 573-810031-74605

(하나은행)

문의: 031-491-9650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부부! 무엇으로 사는가?’

2월 16일 원데이 부부특강 실시

아름다운동행 ‘커플링사역팀’(가정사역본부)에서 부부들을 위한 원데이 부부특강을 2월 16일 오후 3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개최한다. 부부의 갈등을 정서적 친밀감(연합)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서 성경적 가정 원리를 회복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번 원데이 부부특강에서는 ‘부부! 무엇으로 사는가?-남자와 아내의 연합’을 주제로 박성덕 소장(연

리지가족부부연구소)이 강의한다. 박성덕 소장은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전문가이다. EBS 방송 ‘부부가 달라졌어요’, 두란노아버지학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친밀한 부부 관계를 꿈꾸는 부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1인당 1만 원이다. 선착순 200명을 모집한다.

문의: 010-9041-5538

“농업 및 교육 전문가를 찾습니다”

NGO 더멋진세상 세네갈 지역개발사업 참여

NGO 더멋진세상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라 마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농업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를 애대게 찾고 있다.

농업 전문가는 본나라 마을 주민들과 함께 농장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지금 세네갈 시범농장에서는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교육 전문가는 세네갈 케르발라 유치원 방과 후 교실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다. 관련 분야 전공자 혹은

이 분야 경력 5년 이상 된 성도라면 지원할 수 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이 세네갈 본나라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아프리카 성장과 부상을 위한 민간부분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1월 17일에는 이주영 국회의원장이 세네갈 본나라 마을을 직접 방문해 NGO 더멋진세상 봉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문의: 02-2271-2246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매주 수퍼비전과 학기별 교육 제공

온누리상담센터에서 수련상담사를 모집하고 있다. 상담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지원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서,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임상경력증명서(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자격증 사본이다.

비용은 학기당 30만 원. 온누리상담센터 수련상담사로 선발되면 매주 수퍼비전과 학기별 교육이 제공된다.

문의: 02-793-2998

■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 창단



/ 윤경섭 집사(평택 온누리교회)

탁구는 훌륭한 선교 도구

몇 해 전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에서 진행되는 탁구대회에 참가했었다. 탁구를 통해서 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쉽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나는 탁구가 훌륭한 선교 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됐다. 평택 온누리교회에도 탁구선교회를 창단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지난 1월 27일 드디어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가 창단됐다.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는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교팀이다. 최근 사업체들이 평택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평택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많다. 그 덕에 평택 온누리교회에도 새가족이 늘었다. 그들을 섬기고 보살펴줄 선교회가 필요했다. 그래서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를 결성하게 됐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탁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평택시에는 몽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그들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탁구라고 생각한다.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 창단예배에는 많은 성도들과 평택M센터 몽골인 이주민들

이 참석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탁구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창단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간구했다. 창단예배를 드리고 탁구 경기를 했는데 마치 작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다.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는 앞으로 월 2~3회 정도 탁구교실을 열 예정이다. 일반 성도, 새신자, 외국인 노동자 할 것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2달에 한 번은 탁구대회를 개최해서 우승자에게 선물을 줄 계획이다.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다.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 교회에서 의자를 치우고 탁구대를 설치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선물과 간식도 준비해야 하는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믿는다.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가 단순한 천교의 모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평택 온누리교회 탁구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

■ 안산M센터 다문화평생교육원 소개



/ 김정희 선교사(안산 다문화평생교육원)

관심과 참여, 기도를 부탁한다

다문화평생교육원의 모태는 2016년 안산M센터 2층에서 열린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다. 지금 다문화평생교육원에서는 한국어, 토픽(한국어능력시험), 토요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주민 500여 명이 8개 한국어 강좌에서 공부했고, 100여 명이 토픽 과정을 수강했다.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탁구, 요리 강좌로 구성된 토요문화교실에도 이주민 1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빅토리아 자매는 2016년 다문화평생교육원이 시작할 때 우연히 들렀다가 이곳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게 됐다. 빅토리아는 주중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워낙 많은 한국어교육기관들이 있어서 수강생 모집이 쉽지 않았던 시기 나를 도와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포스터를 만들어 붙이고, 토요강좌에서 댄스를 가르치기도 했다. 한국어가 서툴렀는데 지금은 한국어 실력이 좋아져서 취직도 했다. 틈틈이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에서 이주민들을 돕는 자원 봉사도 하고 있다.

네팔에서 E-7 취업비자로 온 순일 씨와 로산 씨는 2018년 6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올해는 토픽 3급 과정을 배우고 있다.

2017년 한국어를 배운 예멘출신 한 형제는 공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치고, 비자발급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마땅히 방법이 없었다. 그 형제는 애만 태우다 센터를 떠났다. 그들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주민 형제자매들이라 더 안타까웠다.

다문화평생교육원은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예배공동체와 연결해 주고 있다. 다문화평생교육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다. 이주민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음을 전하는 교육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4년차에 접어들다 다문화평생교육원이 올해 안산시 지정 한국어교육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4개 강좌의 강사료를 지원받았다. 나는 안산시 한국어교육 유공자로 안산시 시장 표창을 받았다. 올해는 다문화 관광통역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면서 이주민 형제자매들이 직업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문화평생교육원이 교육선교를 잘 감당하고,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를 부탁한다.

문의: 070-4439-1704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김한별, 부: 김승호, 모: 심성순

주의 뜻대로,
주의 인도하심대로

2015년 3월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갖기로 계획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임신하게 됐다. 아이의 태명을 어떻게 지어줄까 고민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복랑’이라고 지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찰을 받는데 유산일 가능성이 있다며 한 주 더 있다가 병원을 방문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정신이 나간 채로 일주일을 보냈다. 병원을 재방문했을 때 유산 확정을 받았다.

그날 이후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렸다. 집에서도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교회에서 아기를 보거나 예배 시간에 신생아 축복기도 하는 것을 보면 복랑이가 생각나 하염없이 울곤 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 우리 부부는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태아가 건강하기만을 기도했다. 이 아이는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주시기를 기대했다. 우리는 아이에게 태명을 지어주기 위해 기도했다. 생명의 주권은 온전히 주님께 있고, 이 생명은 우리 가정에

잠시 맡겨주신 주님의 것임을 고백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겠다는 뜻으로 ‘하로’라는 태명을 지어주었다. 아이가 태어날 시점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다니엘서를 떠오르게 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단 12:3).

이 아이가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이끄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리 부부는 한별이의 생명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고, 한별이가 살아갈 인생 또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다. 한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우리 부부는 유아세례를 신청했다. 한별이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한별이를 우리 부부의 욕심으로 헛되게 키우지 않을 것이다. 한별이가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도록 양육할 것이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한수, 배지연 선교사(캄보디아)

또 하나의 영적인 열매

작년 12월 30일 성탄예배를 드렸다. 캄보디아에서는 12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탄절을 전후로 교회들이 날짜를 선택해서 성탄예배를 드린다. 올해 본국사역(안식년)으로 한국에 가게 되어 이날 작별인사도 함께 했다.

영적으로 척박한 뽕르씨에서 사역하다가 쪼아돔에 오면 얼마나 포근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마치 시골 외갓집에 온 것 같다. 돌아오는 차안에는 망고며 야자수열매, 닭, 오리알이 잔뜩 실려 있어서 더욱 더 그런 기분이 든다.

쪼아돔교회가 건축 중이다. 아직 외부 화장실과 식당, 우물 건축이 남아있다. 교회의 큰 앞마당에는 아이들을 위해 영어나 학교공부를 가르칠 자그마한 공간도 계획하고 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세워지니 동네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이 더 좋아졌다고 말한다.

교회건물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높지 않았던 십자가를 높이는 공사가 필요하다고 교회 리더 중 한 사람인 행 선생이 말

한다. 쪼아돔교회로 인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구원을 얻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는 지난 일 년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 본문으로 학생들에게 설교했다. 아내로부터 아이들에게 너무 자세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세하게 전했다.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고, 퀴즈를 내어서 달란트도 주며 일 년을 설교했다. 그랬더니 중학생 아이들이 제법 구약인물의 족보를 알게 되고 대부분의 성경인물의 이름을 외우게 되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해도 여지없이 “착한 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하고 물으면 큰소리로 “있어요!”라고 대답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다.

본국사역을 위해서 선교지를 잠시 떠나며 자식과 같은 교인들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또 하나의 영적인 열매를 기대한다.

장로칼럼

키다리 아저씨



임광순 장로
(다문화사역팀)

〈키다리 아저씨(영어 원제: Daddy-Long-Legs)〉는 미국의 소설가 진 웹스터가 1912년 발표한 소설이다.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던 소녀가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학교에 진학하

게 된다. 소녀는 그 후원자를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렀다. 키다리 아저씨는 ‘돕는 자’의 상징으로 여러 뮤지컬과 영화로 다루어졌다.

나는 교회에서 이주민사역과 다문화사역을 하고 있다. 다문화사역은 교회에서 주어진 직임이고, 이주민사역은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다. 이주민사역은 6년 전 경기북부지역에 있는 이주민교회에서 작은 음악회를 계획하다가 확대된 사역이다. 처음에는 온누리교회 주향한찬양사역팀과 함께 5개 교회 180여 명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음악회를 열었다. 이 음악회는 6년이 지난 지금 1,000여 명의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민 음악회로 성장했다. 참여하는 교회 수도 23개로 늘어났다. 이주민 음악회는 이주민교회들을 연합하게 하였고 지역교회의 협력을 이루게 하였다. 이런 배경 뒤에는 온누리교회 순장 학교 아웃리치팀이라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다. 그밖에도 여러 공동체 1다락방 1사역, 마노아의료선교팀, 2000선교의 키다리 아저씨들이 연약한 이주민 교회의 후원자가 되어 줬다.

경기북부에는 54개 이주민 교회들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주민 교회를 틈틈히 세워 이들이 선교를 잘하도록 돕는 조력자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나는 온누리교회라는 키다리 아저씨의 대리인 역할을 할 뿐이다.

다문화사역에도 키다리 아저씨가 절실히 필요하다. 포천시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공부방인 지역아동센터 평화의 집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다. 2년 전 온누리교회 다문화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곳에 전달하러 갔다가 센터장 목사님으로부터 주일학교를 섬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9개월 후 요셉청년 공동체의 협조로 하랑어린이예배가 탄생되었다. 포천의 다문화어린이들은 문화의 문제보다 가난, 외모와 성적의 열등, 왕따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상처 속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다. 무엇보다 사랑의 결핍이 아이들을 분노 조절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갖게 한다.

하랑어린이예배의 예배가 처음부터 잘 진행된 것은 아니다. 예배 중 도망가는 아이들을 잡아다 농기에 급급했다. 분위기도 난장판이었다. 그러나 복음과 사랑이 아이들을 변화시켰다. 청년 선생님들의 헌신이 그들을 예배자로 만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있다. 봉사자로 섬기는 집사님 부부다. 그 부부는 다문화 가정들을 심방하고 부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아이들의 뉘세나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사서 입히기도 한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준다. 이러한 사랑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에 나오게 하고 있다. 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키다리 아저씨와 연결되었으면 한다.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이야기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키다리 아저씨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고, 매주 전화 한 통 해주며, 한 달에 한 번쯤 만나 대화하고 적은 용돈이나 식사를 사주면 된다. 그것마저도 여유가 안 되면 매일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좋다. 이 이야기말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의: 010-2253-3692

권사칼럼

아쉬움의 순간들



신정자 권사
(강남A공동체)

은퇴(隱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사회에서는 직업이나 일의 종결을 의미한다. 교회에서도 은퇴는 직(任)에서 물러나 한가히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은퇴가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

나고 어느덧 나도 은퇴권사가 되었다. 단어의 의미대로 직임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지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직임을 내려놓는 것도 최선을 다해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취임 이후 권사 직임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교회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봤다. 권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중보기도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다해 기도했는지 되돌아봤다.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교회사전에는 직임을 ‘교회일상에서 직무상 맡은 책임(민 7:8, 대상 25:8, 대하 31:15)’이라 명시하고 있다. 취임 전 예비권사교육에서 많은 강의를 통해 들었던 기억이 이제야 새롭게 떠오르고 지금에서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간 나는 직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등 떠밀리듯 사역을 해왔다. 때로는 내 부족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그걸 유지하느라 긴장의 연속 가운데 있었다. 헛된 자존심을 지키느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위선적으로 행동한 적도 있었다. 훗날 주님께서 “너는 주어진 사역을 열심히 했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할 말이 없어 매우 당황할 것 같다.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니 “그때는 그럴 걸”, “그 사람에게 그러지 말걸”, 더 사랑할 걸” 등

아쉬움의 순간들이 떠오른다. 환우심방을 갔을 때 모든 환우들을 다 만나야 한다는 명분에 짧은 기도와 위로 후 돌아서는데 한 환우가 내 옷깃을 잡았다. 그 손을 내려놓는 순간 그 환우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 안에는 쓸쓸함과 외로움이 서려있었다. 모든 환우들이 아니더라도 한 환우라도 최선을 다해 섬겼어야 했는데 뒤늦은 아쉬움이 밀려온다. 교회등록을 위한 새신자교육반에서는 교회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으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다. 나는 여러 질문에 몇 번 응대하다가 “다녀오시면 다 알게 돼요”라며 성의 없게 답변했다. 무안해하던 새신자들의 표정이 후회 가운데 다시 떠오른다.

몇 해 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아이를 등에 업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는 젊은 엄마를 만났다. 그 자매는 “남편이 믿지 않아요. 새벽기도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고 있는데 아이들을 깨울 때 아이들이 울면 남편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한대요”라고 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말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들과 나뉘어 없었다. 그 귀한 자매를 꼭 안아 주면서 “주님께서 아시니 힘내라”고 말하며 다독여 주지 못한 것이 지금에서야 절절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때 어린아이의 손을 잠깐 잡았는데 너무나 차가워 그 손에 따뜻한 무언가를 쥐어 주고 싶었다. 그 해부터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나는 날이면 따뜻한 떡을 온 교인들에게 나눠준다. 그해 그 아이의 손에도 그 떡이 들려졌을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다.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다. 아쉬움을 남기지 말아야겠다. 동시대를 나와 함께 살아온 사랑하는 은퇴권사 동지들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무엇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인지 고민하기를 원한다. 모든 권사님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신앙에세이



유수열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성경에서 ‘레갑 자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겐족속이며,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던 부족이기도 하다. 출애굽 당시 그들은 이스라엘에 합류하여 가나안에 들어갔다. 레갑 자손의 이야기는 예

레미야 35장에 등장한다.

당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위급한 때였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하셨다.

레갑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초청을 받아 성전에 왔고 “포도주를 마시라”는 소

리를 듣게 된다. 레갑 사람들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이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소개된 바로 앞장 예레미야 34장에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켜보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고관대각과 지도자들은 바벨론이 침략하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희년을 선포하며 노예를 해방한다. 하지만 전쟁의 위기가 잠시 가라앉자 해방된 종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자행했다. 3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화롯불에 태우는 모습까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무참히 짓밟고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레갑 자손들의 신실함을 보여주셨다.

레갑 자손들은 조상의 명령을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집도 짓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으며, 포도원을 가꾸지도 소유하지도 않았다. 유목민이 되어 장막에만 거하는 삶을 2백여 년 이상 살아왔다. 아마도 그들의 조상 요나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바알 우상에 빠뜨리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규례를 명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후손들에게는 도시 한복판이 아닌 광야에서 계속 경건생활을 이어가게 하려는 것이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명령을 어길 수도 있었고,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수정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언반구 조건을 내걸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며 광야에서 생활했다. 그들의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레갑 사람들은 물이 귀한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며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

터전을 소유하지 말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규례들을 그대로 붙들고 지켜왔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실한 레갑 사람들을 축복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렘 35:19).

레갑의 자손들은 이후에도 계속 조상의 규례를 지키며 목동의 삶을 살아가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도 들판에서 양 떼들과 함께 있다가 가장 먼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는 영광을 얻게 된다.

불의와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들처럼 우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 올 한 해 성령의 바람이 온누리교회 가운데 불어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과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욥의 친구들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욥은 친구들을 침묵시킵니다. 친구들은 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후는 네 번에 걸쳐 욥에게 교훈을 줬습니다. 비록 고난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직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피조물 된 인간이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욥의 영혼에 임하면서 드디어 42장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체험하고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의 결론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임한 후에 깨달은 것, 욥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깨달은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첫째, 욥은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하시면서 자신을 가장 수동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일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2-3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으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한없는 무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질투 같은 어둠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앞에 펼쳐져 있을 때, 그 어둠 속에서도 보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어둠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빛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둠은 우리를 쉬게 하고, 멈추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어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일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체험

둘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5절).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직접 보는 체험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체험,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욥이 고난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

의 은혜입니다.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숨어있던 깊은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6절).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릴 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했습니다. 그런 욥에게도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 의가 숨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점차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깊은 어둠을 통해서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의, 숨겨졌던 의를 밝히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찾아온 영혼의 어두운 밤이 아니고서는 숨어있는 자기 의를 발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의 주제는 ‘욥과 같은 의인도 회개할 자기 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엄청난 고난을 통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밤이 임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 자기 의를 발견하고 회개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수동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닙니다. 어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를 드러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연합하도록 만듭니다. 때로는 고난이 없어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는 영혼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온전히 쓰러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둠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어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큐티는 그 기록이어야 한다



김대진 목사
(송파공동체)

작년 10월, 아이스쿨 ‘베이지 큐티반’을 가르칠 때였다. 첫째 주에 ‘큐티를 기록하라’는 숙제를 내줬다. 큐티를 기록하되 하나님의 뜻과 그날 깨달은 나의 상태를 기록하라고 했다. 둘째 주에는 카톡방(SNS)에 ‘단체큐티

방을 개설하고 매일 큐티’를 올리게 했다. 큐티는 강의만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주에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순 단체 카톡방에 ‘그날의 큐티를 올리라’고 숙제를 내주었다. 순, 큐티, 일대일 제자양육은 온누리교회의 DNA이고 자랑이다. 순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춘 큐티를 나누고,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을 나눈다면 그 순은 사도행전의 부흥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 단체카톡방에 큐티를 올린 성도들

이 하소연을 했다.

“목사님, 제가 큐티를 올렸더니 카톡방이 싸늘해졌어요”, “자녀가 대학에 붙었다는 글이 올라오면 ‘아멘’ 댓글이 현란하게 올라오는데, 큐티를 올렸더니 카톡방이 쥘 죽은 듯이 고요해졌어요”, “제가 올린 큐티 나눔 글이 잘 지내고 있는 카톡방에 난데없이 돌을 던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등이었다. 나는 너무 걱정이 됐다. 기복적인 믿음을 위해 순이 존재한다면 고된 세상살이에서 작은 위로의 공동체는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비전은 이름뿐일 수밖에 없다. 나와 성도들은 지난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때 설교 듣고 큐티한 내용을 공동체 단체카톡방에 올렸다. 그렇게 하면서 큐티 내용이 깊어지고, 자기 자신과 순을 솔직하게 보기 시작했다.

송과공동체는 모든 순이 오전에 큐티를 올린다. 저녁에는 복음서 두 장씩을 3독하고, 큐티한 내용을 적은 ‘3독 큐티’를 올린다. 주일에는 주일설교 큐티를 올린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작아지고 내 안에 말씀이 커지면 하

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지만, 말씀이 주인 된 삶에 익숙해질수록 간증을 나눌 가능성이 커진다. 나는 하루에 수많은 큐티 메시지를 읽는다. 큐티 하나하나가 귀하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니 변화하는 성도와 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누가 깨어 있는지, 누가 잠들어 있는지 구분이 된다. 매일의 큐티는 자신을 감출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깊이 갈망해야 한다.

매일 3~4시간 동안 성도들의 큐티를 읽으면서 큐티의 세 단계가 보였다. 1단계는 말씀을 정리하고 간단한 기도문으로 마치는 ‘말씀 정리 큐티’이다. 2단계는 ‘생각의 큐티’이다.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깨달은 바를 적는 큐티이다. 3단계는 ‘생활의 큐티’이다. 일상생활을 통해 내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큐티이다. 3단계 생활의 큐티는 리얼리티(현실성)가 분명하다. 1단계 큐티에서 2단계 큐티로, 2단계 큐티에서 3단계

큐티로 나아가야 한다. 3단계 큐티를 하는 성도는 자신의 큐티를 읽는 사람이 영적인 도전을 받을 만큼 강력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중 1월 10일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았다.

“새 마음이란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생생된 하나님의 성함과 욕구를 말한다.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강력한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조지 몰러처럼 헌신의 표준이 높아진다.”

나는 큐티의 표준을 높일 것이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진 큐티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도전, 변화의 불을 일으킨다. 성도들의 큐티를 보고 격려, 도전, 책망을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시간과 경험과 의지를 집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강권할 것이다. 큐티는 그 기록이어야 한다. 큐티가 빈약한 것은 영혼이 빈약한 것일지도 모른다. 큐티가 피상적인 것은 겉 신앙 타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큐티가 풍성한 것은 자기 부인의 결과이다.

Acts 29

게시판

2019년 2월 3일(주일) | 제1232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요역) 잔여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제)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가): 80기
문의: 02-3215-3176

예수사랑부 겨울캠프 봉사자 모집
일시: 2월 16일~17일
장소: 애버랜드, Acts29비전빌리지, 용인한 국민속촌
인원: 20명
내용: 장애인 돌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이찬우 목사 양육자반 모집
일시: 2월 20~6월 5일 매주 수
마감: 2월 17일까지
신청: iSchool
문의: 02-3215-3220

샘물중고등학교 교직원 모집
모집: 수학
마감: 2월 20일까지
참고: www.smca.or.kr

김포M센터 봉사자 모집
분야: 주일 오후 한국어 교사, 주중 한국어 교사, 토요일 활동 봉사자
위치: 김포 양촌읍 양곡리 443 양곡 프라자 7층
문의: 민경윤 선교사(010-2997-4347)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심방전도 요청 받음

양재 살롬기도회 일정 안내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김정용 총무(010-5339-4522)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양재

POINT5 밴드팀원 모집
분야: 드럼, 베이스, 일렉 각 1명
자격: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 찬양사역 경험자
문의: 김윤진(vjoryankim@gmail.com), 010-5028-2586)

양재 꿈땅 찬양교사 모집
시간: 주일 아침 8시~11시 30분
장소: 초등1부 온유홀, 소년1부 드림홀
자격: 차세대를 마음에 품고 성실하게 예배팀을 섬기기 원하는 성도(키즈벤처 활동이 가능한 분)
인원: 2명
문의: 유승현 목사(010-4330-2553)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중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본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교(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여년) 오후 7: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을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0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2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2/3, 10, 17, 24: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송도동 162-1)
파워웨이브(중고등부)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사랑부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오후2시
차세대예배 영아/유치/유년/초등/파워웨이브 2부/사랑부 11:20/꿈땅1부/파워웨이브 1부 9:00/해브리크즈 오후 2시/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0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본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두란노홀
사랑부 오전 9:00 사랑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본당

양지

0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2부 예배 / 11:00 / 2층 김사무엘홀(본당)
3부 두드림예배 / 14:00 / 지하1층 박모세를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아) / 11:0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0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00 / 지하1층 위더스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00 / 2층 이벤텔러를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00 / 2층 스크랜턴을
파워웨이브(중·고등) / 11:00 / 지하1층 박모세를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CGNTV

설 특집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CGNTV 콘텐츠를 나누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세요.

본격러브액션드라마 '고고송'

결혼을 코앞에 두고 번번이 도망치는
주인공 공선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의 순간들을 만나며
마침내 사랑으로 GO하는 이야기.
<고고송>이 진정한 사랑의 감동을 전합니다.

윤은혜, 지일주 주연

2월 3일(주일) 밤 11시 방송 (2부작 연속 방송)
2월 5일(화), 6일(수) 오후 3시 20분



/특집다큐멘터리
인플루언스, 위대한 영향력
그라운드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는 커쇼,
힐만, 이영표 등 스포츠 스타들의
신앙고백과 스포츠 선교단체인
FCA 사역의 선한 영향력을 조명합니다.

[1편] 2월 5일(화) 오후 10시 50분
[2편] 2월 6일(수) 오후 10시 50분



/영화
그레이스 앤 그라비티, 은혜의 중력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영국인 남자와
이를 말리려는 미국인 크리스천 남자의
대화를 통해 삶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2월 4일(월) 오후 3시 20분 방송



/맞춤특강 나침반
가정예배 다시쓰기! : 가족예배 가이드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예배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합니다.

강사: 신형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2월 4일(월) 오전 8시 방송



/간증 토크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개그맨 오지현이 출연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의 비밀과 다음세대를 향한
마음을 나눕니다.

2월 3일(주일) 오후 6시 20분 방송

CGNTV 시청안내

IPTV **olleh** ch.237 **SK** B tv ch.302 **LG** U ch.271 **케이블** **D'LIVE** ch.304 **HELLO** ch.322 **CS** 푸른방송 ch.159 **현대HCN** **HYUNDAI** ch.550

▶ YouTube LIVE 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CGNTV' 검색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